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



“꼭두각시 놀음”
홍성담의 목판화

조지 카치아피카스 교수

전남대학교

번역: 신은정

제 1부:

미국정부의 시각과 조치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싸이러스 밴스(Syrus Vance)가
1979년 2월 미 대사 글라이스톤에게 전문을 보낸다.

미국의 목표는 “점점 더
번영하고 있는 남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통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의 몫을
최대한” 얻어내는 것이다.



미국은 새로운 군부독재에 대한 반대세력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알고 있었다

- 1980년 2월 미국은 전두환이 38선 후방에서 북한과 싸우기 위해 훈련을 받은 특전사단을 시위 진압을 위해 광주로 동원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팀 쇼록(Tim Shorrock), 광주의 패퇴:
워싱턴의 전문은 1980년 광주 학살의 허가로 해석되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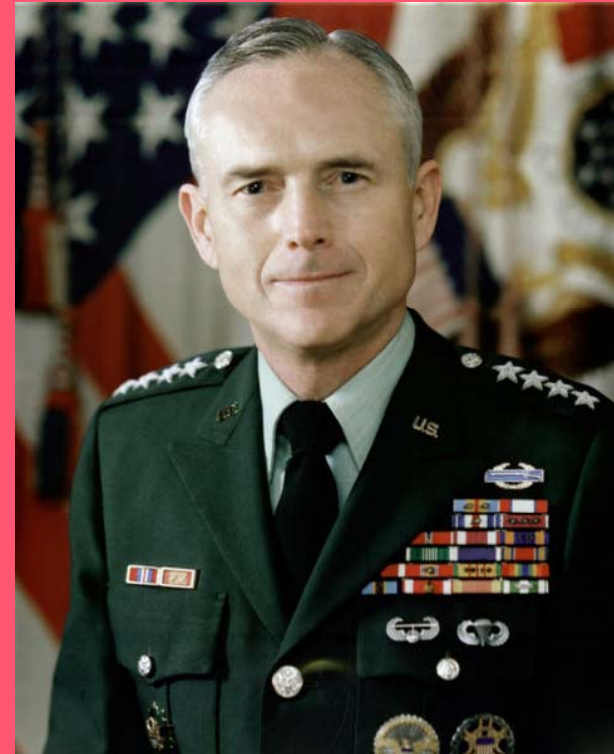
- 1980년 5월 8일 미 국방정보국이 합동참모국에 7공수 특전여단(광주에서의 최악의 만행에 책임이 있는)이 “전주와 광주의 대학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같다”고 보고함.
- 1980년 5월 8일 글라이스톤이 특수부대가 “가능한 학생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옮겨졌다고 워싱턴에 보고함.
- 1980년 5월 9일 글라이스톤이 전두환과 만나서 미국은 남한이 “만약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경찰과 군대를 강화하는 긴급대책”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함.
- 1980년 5월 9일 미 국무부와 국방정보국의 전문: 미국은 전두환에게 군대를 학생시위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승인을 해주었다.
- 1980년 5월 10일 미 국무부 차관 크리스토퍼가 글라이스톤에게 보낸 전문: “우리는 경찰과 군대를 강화하려는 남한의 계획에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

1980년 5월 15일, 십 만명 이상이 서울역 앞에서 시위함

글라이스톤은
시위대를 지켜보았고,
후에 시위대 중 일부가
미 대사관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자 이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



- 1980년 5월 16일
미국은 제 20사단을 그들의
작전통제권에서 방출함.
“워싱턴에 있는 그의 상관들과
의논한 후에” 위컴은 제 20사단이
광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승인함.



- 1980년 5월 19일

한미연합사령관 존 A 위컴 주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얼마나 빨리 힘을 규합하고 어떤 형태로 그것을 가져갈
것인가이다”

위기의 한국: 정치적 음모와 군의 위기에 대한 기억”
(워싱턴. Brassey's, 2000) p. 132



1980년 5월 21일

글라이스톤이 DC에 보낸 전문: “광주에서의 대규모 반란은 아직 통제밖에 있으며 걱정스러운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대규모의 폭도가 일시적으로 도시를 장악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공동체



대동세상 1(홍성담)

5월 22일 글라이스톤이 워싱턴에 보낸 전문:

광주는 “완전한 공포의 장으로 변하였다...폭도들이 헬리콥터를 향해 총을 쏘았다고 보고되고 있다.”

- 서울의 한 방송사는 5월 21일, 어젯밤 8시 광주의 시위대가 15만명으로 증가했으며 마침내 폭도가 되었다고 보고했다. 폭도들은 230대의 차량을 강탈하고 3500대의 소총과 45,400정의 총탄을 보유했다...
- 2페이지 서울 06522 221019Z
...광주는 완전한 공포의 장으로 변하였다. 사상자의 숫자는 전해지지 않았다. 공수부대들은 전남대 의과대학 옥상에서 자동소총을 발사하는 폭도들에 대항해 도시를 방어하라는 임무가 주어졌다. 폭도들이 헬리콥터를 향해 총을 쏘았다고 보고되고 있다...

GDMM IX:219. (80Seoul 006522). *May 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Materials*, hereafter GDMM, Gwangju City May 18 Historical Materials Compilation Committee
광주광역시 5.18사료 편찬위원회, 5.18 광주 민주화운동 자료총서. 1997년 12월 17일

백악관 회의

5월 22일 오후 4시, 백악관에서 국무장관 에드문드 무스키(Edmund Muskie), 국무차관 워런 크리스토퍼(Warren Christopher),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 리차드 홀브루크(Richard Holbrooke), 국가안보고문 즈비그뉴 블젠진스키(Zbigniew Brzezinski), CIA 국장 스탠스필드 터너(Stansfield Turner), 국방부장관 해롤드 브라운(Harold Brown), 전 서울 CIA 지부장 도날드 그렉(Donald Gregg)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회의가 열렸다.



“...가장 시급한 사항은 광주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데
공통된 합의가 이뤄졌다...”

글라이스톤의 저서 “엄청난 관계. 변방의 영향: 카터와 위기의 한국인” p 135쪽을 보라.



백악관 회의

1980년 5월 22일

- 그들은 제 20사단을 한미연합사령부에서 한국군 산하로 옮김으로써 광주민주항쟁의 진압을 승인했다. 그리고 동시에 6월에 존 무어 수출입은행장을 서울에 보내 미국식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거대 규모의 남한과의 계약 체결과 서울 지하철을 확장하는 문제를 처리하도록 결정했다.
- 5월 23일, 백악관에서 모임이 있는지 불과 몇 시간 후, 글라이스톤은 남한의 국무총리 박충훈에게 요구해 회동을 갖고, “폭동 진압을 위한 확고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승인했다.



위컴은 “한국 정부로부터
나의 작전 지휘권 아래
있는 특정 한국군을
시위대의 진압작전에
동원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수락, 동의하였다”

1980년 5월 22일 미국방부 대변인

5월 23일 이어서



TEXT OF TELEGRAM BOSEOUL 006610

4. AT MY REQUEST I PAID AN INITIAL CALL ON ACTING PRIME MINISTER CHOONG HOON PARK (M-R: PAK CHUNG-HUN) MAY 23. THE DCM ACCOMPANIED ME; PARK WAS ALONE. AFTER CONGRATULATING PARK (WHO IS LIKELY TO REMAIN "ACTING" A LONG TIME SINCE HE ALONE OF THE CABINET MUST BE APPROVED BY THE ASSEMBLY), I OUTLINED IN SOME DETAIL U.S. POLICY TOWARDS KOREA SINCE PRESIDENT PARK'S DEATH. I SAID THAT THE POLICY DECISIONS OF MAY 17 HAD STAGGERED US. WE AGREED THAT FIRM ANTI-RIOT MEASURES WERE NECESSARY, BUT THE ACCOMPANYING POLITICAL CRACK-DOWN WAS POLITICAL FOLLY AND CLEARLY HAD CONTRIBUTED TO THE SERIOUS BREAKDOWN OF ORDER IN KWANGJU. THE GOVERNMENT'S STATEMENT OF MAY 22 MAKING FURTHER ACCUSATIONS AGAINST KIM DAE JUNG (M-R: KIM TAE-CHUNG) HAD ONLY WORSENEED THE SITUATION.

5. THE UNITED STATES IS DOING ALL IT CAN TO HELP IN THE RESTORATION OF ORDER, I CONTINUED. WE ISSUED A STATEMENT IN WASHINGTON WHICH HAD THE APPROVAL OF THREE CABINET-LEVEL OFFICIALS. AND WE HAVE AGREED TO "CHOP" FORCES UNDER CFC COMMAND TO KOREAN AUTHORITIES FOR USE IN KWANGJU. HOWEVER, AS WE NOTED IN OUR STATEMENT, ONCE CALM IS RESTORED, WE ARE CONVINCED THE POLITICAL PROCESS MUST ONCE AGAIN RESUME. I COMPLIMENTED PARK FOR INCLUDING A REFERENCE TO THIS ISSUE IN HIS FIRST SPEECH MAY 22. PARK

- 5. 미국은 질서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우리는 광주로의 투입을 위해 한미 연합군 사령부 산하 부대를 *잘라내 한국군에 이양하는 것에 승인했다.

백악관 기자회견

5월 23일 워싱턴에서 미 국무부 대변인 호딩 카터(Hodding Carter)는 카터 정부는 “남한의 정치 자유화에 대한 압력을 연기하는 한편 안보와 질서의 회복을 지지하기로 결심했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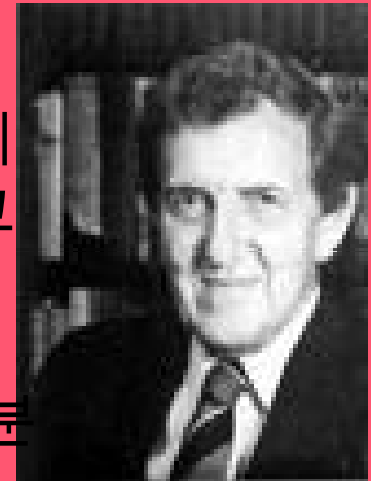


카터 대통령은 더 노골적이었다: 그는 5월 31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때로는 안보의 중요성이 인권의 중요성보다 우위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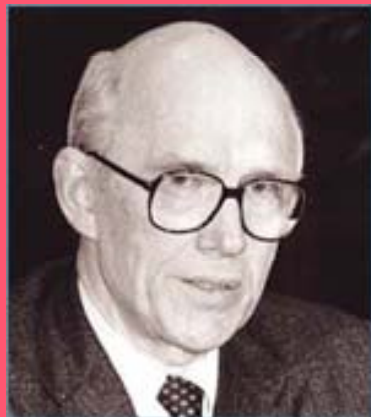


1980년 5월 24일미국은 한국에 미국군의 코랄함대가 도착할 때 까지 광주 진압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한다.

1980년 5월 25일 국무장관 무스키의 전문: 광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바뀌었다. 그의 정보통에 따르면 “온건파 수습위는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고 과격파가 등장해 세력을 장악했다. 인민재판이 열렸고 약간의 처형이 이뤄졌다. 학생시위대는 혁명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신원미상의 무장한 과격파들로 대부분 대체되었다.



GDMM IX:254. (80State 138557).



1980년 5월 26일글라이스틴이 워싱턴에 보낸 전문: “광주의 상황”은 “더욱 나쁜 쪽으로 과격한 전환을 했다. 과격파들로 이뤄진 무장그룹과 심지어 인민재판과 처형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GDMM IX:257. (80Seoul 006660).

1980년 5월 26일

시민군대변인윤상원은
글라이스틴에게 미국이
평화로운 해결을
중재해줄 것을 요청한다.
글라이스틴은 대답을
거절한다.



5월 27일 윤상원은 군의 진압작전에 의해
도청에서 사망한다.

5월 27일

군의 광주 재점령



1980년 5월 22일 미국방부 대변인:

위컴 장군이 “그의 작전명령권 산하에 있는 특정 한국군을 시위대의 진압작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한국정부의 요구를 받고 이를 수락, 동의하였다”

1989년 6월 19일 미 국무부 보고서:

미국은 “특수전투부대가 광주로 이동한 것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사전 정보도 없었다.”

제 2부: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초 시작되었다.

1974년 어거스트 하이예크(August von Hayek),
1976년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면서
신자유주의적 통화 관리 경제 정책이 정당화되었다.

칠레는 “1975년 이후 완전한 신자유주의가 실행된”
하나의 견본이었다.

1979년 영국과 미국에서 “신자유주의의 극적인 강화”가
국가정책의 수준에서 일어났다.

데이빗 하베이(David Harvey), 신자유주의의 역사. P 22, 74.



임마누엘 월러스테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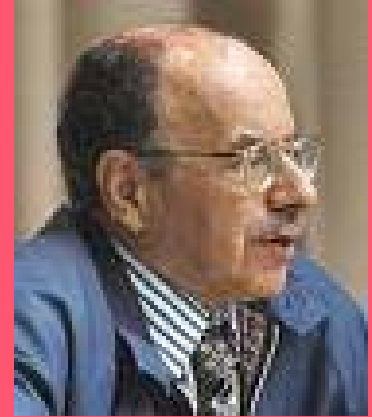
(Immanuel Wallerstein)

신자유주의 시작을 70년대 후반으로 산정: “지난 30년의 금융 투기는 실업과 빈부의 격차를 증가시켰다.” 그는 신자유주의를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의 반혁명으로 간주했다.

2008년 라디오 인터뷰에서

<http://www.againstthegrain.org/>

제임스 페트라스 (James Petras)



“신자유주의의 첫 장”을 1970년대
남미와 1980년 터키로 추정했다.
신자유주의의 첫장은 “군사쿠테타 직후
시작되었다. 그리고

- 이것은 대규모의 부패와 위기, 사회불평등의 심화와 부정축제를 일삼는 정부의 출현이 동반되었다.
- 더 큰 계급분열을 야기했다.
- 거대한 민영화와 은행, 산업, 통신 및 다른 전략적 부문에서의 비국유화를 이끌었다.

“터키와 라틴 아메리카: 반작용과 혁명”

<http://www.dissidentvoice.org/2007/09/turkey-and-latin-america-reaction-and-revolution/>

신자유주의가 의미하는 것은...

- 전 세계 358명 부자들이 소유한 자기자본이 1996년 기준 전 세계 45% 인구, 즉 23억명이 벌어들이는 소득과 일치했다.
- 전 세계 200명 부자들이 1998년까지 4년 동안에 1조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며 자기자본을 두 배 이상 불렀다.

UN 개발 프로그램, 인간개발 보고서 1996, 1999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이라는 이름 하에 국가의 경제가 대기업과 은행에 침투되는 것이다. 이것의 결과는...

- 공기업의 민영화
- 기업의 세금감면
-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
- 빈부 격차의 확대와 빈곤층 증가
-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현재 남한의 50%이상의 직업이 비정규직이다)
- 외국자본의 유입

- 미국에서, 1980년에 정부가 제시한 최저임금은 공식적인 빈곤층 생활수준에 맞아떨어졌다.

1990년까지 최저임금은 빈곤층 생활수준의 30%이하로 떨어졌다.

- 1990년 이후 더욱 가파른 실제 임금 하락이 일어났다.

신자유주의가 의미하는 것은...

- 케냐는 1990년대 IMF의 구조조정과 무역자유화 결과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작물인 옥수수의 수입국이 되었다.
- 아이티는 1975년에 자국민을 먹이는데 필요한 모든 쌀을 생산하고 있었다. IMF는 아이티에 2억 4천 6백만 달러를 빌려주었고 대신 외국에 시장을 열기위해 쌀과 다른 작물에 대한 수입관세를 낮출 것을 요구했다. 2년 이내에 농민들은 “마이애미 쌀”과 경쟁할 수 없었고 결국 생산을 중단했다. 오늘날 아이티의 빈곤층들은 “진흙 쿠키”를 먹는다.

미 상공회의소

- 1970년대 신좌파의 전성기 이후 닉슨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으로 임명되기 직전이었던 루이스 포웰(Lewis Powell)은 미 상공회의소를 향해 기밀의 메모를 남겼다.

“참으로 오랫동안 지연됐던 그 시기-지혜와 정교함, 그리고 재원을 갖춘 미국 경제가 이것을 파괴할 지 모르는 세력에 맞서 선도할-가 왔다.

- 미 상공회의소는 1972년 6만개의 조직에서 1982년 25만 개 이상으로 확장했다.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 비록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신자유주의가 도입된 것은 1990년대 -특히 1997년 IMF위기와 함께-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의 첫 장은 1980년 광주항쟁과 함께 시작되었다.
- 미국은 신자유주의 경제 제도를 강요하기 위해 광주에서의 진압을 지원했다.

광주 공동체가 잔혹하게 진압된지 3일 후 글라이스틴은 이렇게 썼다.

...한편 외부의 침략에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헌신은 기본적인 신념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안보관계에 대한 선취와 더불어 경제, 상업적 관계가 매우 중요해져 왔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1979년 한국은 미국 수출의 42억 달러, 수입의 41억 달러를 부담하는 13번째로 큰 무역상대였다. 한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미국은행들의 경제적 리스크, 그리고 미국이 직접적으로 이 나라에 투자 소유한 금액은 3억 달러가 넘는다. 이러한 경향은 다가오는 미래에 지속적인 미국-한국의 동맹 관계를 형성해야하는 강한 근거이다.

RELATIONS WITH SOUTH KOREA...
AND STABILITY OF EAST ASIA; IN THE MEANTIME, THE COMMIT-
MENT OF THE UNITED STATES TO DEFEND KOREA AGAINST OUT-
SIDE AGGRESSION REMAINS A FUNDAMENTAL TENET OF U.S.
FOREIGN POLICY. BUT IN OUR PRE-OCCUPATION WITH THE
SECURITY RELATIONSHIP, WE SHOULD NOT FORGET THAT ECONOMIC
AND COMMERCIAL TIES HAVE TAKEN ON AN ENORMOUS IMPORTANCE
OVER THE YEARS. IN 1979, KOREA WAS OUR 13TH LARGEST
TRADING PARTNER, ABSORBING ABOUT 4.2 BILLION DOLS
IN U.S. EXPORTS, WHILE ACCOUNTING FOR 4.1 BILLION DOLS
IN U.S. IMPORTS. EXPOSURE OF U.S. BANKS IN KOREA
RUNS INTO MANY BILLIONS OF DOLLARS, AND DIRECT U.S.
EQUITY INVESTMENT IN THIS COUNTRY AMOUNTS TO OVER 300
MILLION DOLS. ALL OF THESE TRENDS INTERLOCK TO FORM A

STRONG FOUNDATION FOR SUSTAINED GROWTH IN U.S. - KOREAN
RELATIONS IN THE YEARS AHEAD.

WILLIAM H. GLEYSTEN, JR.

GDMM IX: 304-5: 80Seoul 006921.

광주와 신자유주의

5월 30일, 글라이스틴은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경제잡지 '내셔널 비지니스'에 다음과 같은 글을 기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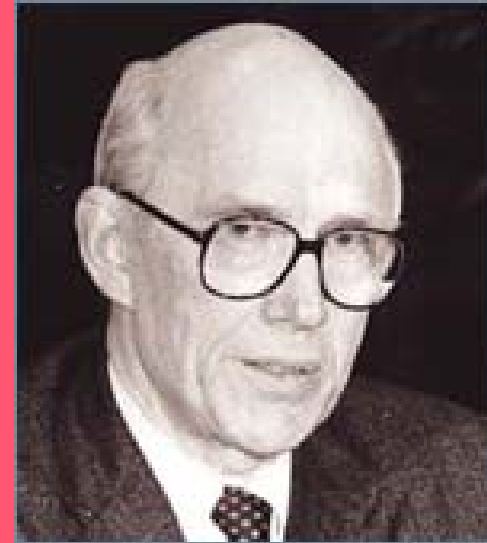


US Chamber of
Commerce building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은 지난 이 십년 동안의 거의 광적인 성장으로부터 보다 절제되고 안정된, 현재의 경제발달단계에 걸맞는 시장 중심의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이 나라의 경제적 발달을 위한 그 다음 중요한 단계는 강력한 중앙집권을 넘어 시장의 힘을 신뢰하는 경제자유화를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인가된 조건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광주와 신자유주의

- 글라이스틴은 “중앙의 통제”로부터 “시장의 힘”으로의 변화의 필요성과 “경제 자유화”를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광주항쟁의 진압은 한국에 신자유주의적 체제 증식을 위한 피의 강요였음을 나타낸다.

0 060836Z JUN 80
F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IMMEDIATE 6877
INFO AMEMBASSY TOKYO
COMUSKORLA SEUL KS//BJ-IS
CHJUSMAG SEUL KS
SA CINCPAC KS

C O H 1579 [REDACTED] L SECTION 02 OF 04 SEUL 07266

MIRRORS ACCURATELY THE ATTITUDES OF THEIR PRIMARY CONTACTS. U.S. BUSINESSMEN ARE CAUTIOUS OVER THE LONG-TERM STABILITY OF THE ROK BUT LESS CONCERNED OVER DEMOCRATIC DEVELOPMENT. IF THE MILITARY LEADERSHIP CAN DEVELOP AN APPARENTLY STABLE STRUCTURE AND REINVIGORATE THE ECONOMY, THEN U.S. BUSINESS AND BANKING CIRCLES WILL BE PREPARED TO GO BACK TO BUSINESS AS USUAL. THE MISSIONARY COMMUNITY, IN CONTRAST, IS ACUTELY DEPRESSED BY RECENT DEVELOPMENTS, CONCERNED OVER THE POSSIBLE MISREATMENT OF THE NUMEROUS PEOPLE ARRESTED, AND CRITICAL -- OFTEN BITTERLY CRITICAL -- OF THE U.S. FOR NOT HAVING IN SOME WAY PREVENTED THESE DEVELOPMENTS. THEY ARE QUICK TO BRING TO THE EMBASSY TALES OF RISING ANTI-AMERICAN SENTIMENT, ARE NOT TAKEN WITH MOVES WE HAVE ALREADY MADE, AND CANNOT BE COUNTED ON FOR SUPPORT IN OUR DIFFICULT MANEUVERINGS OVER THE NEXT FEW MONTHS. SINCE THE U.S. CHURCH SUPPORTERS OF THIS LATTER GROUP ARE MORE NUMEROUS AND MORE VOCAL THAN THOSE OF THE BUSINESS COMMUNITY, WE WOULD EXPECT THAT COMPLAINTS REACHING THE DEPARTMENT WILL BE HEAVILY WEIGHTED ON THE SIDE OF THE CHURCH-RELATED AMERICAN RESIDENTS OF THE ROK. THESE TWO

6월 6일, 글라이스틴이 워싱턴에 전문을 보낸다

Doc: GDMM 9: 348

...미국의 경제인들은 한국의 장기적 안정성에 신중함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민주적 발달에 대해서는 덜 신경을 쓰고 있다. 만약 군부의 지도자가 명백하게 안정된 구조와 경제부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미국의 경제인들과 은행가들은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선교사 집단은 이와 대조적으로 최근의 사태로 인해 격심하게 낙담해 있으며 수많은 체포된 사람들에 대한 가능한 확대를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종종 미국이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몹시 비평적이다. 그들은 순식간에 대사관과 관련한 소문으로 반미 정서를 일으킬 수 있다...미국의 교회 지지자가 경제인보다 숫자가 더 많고 더 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한의 교회와 관련한 미 거주자들의 미국 정부를 향한 불평의 목소리가 매우 크리라는 것을 예상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전두환에게 경제적 투자를 위한 안정성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고, 전두환의 “정화” 프로그램은 재빨리 수행되었다. 투자자들의 공포를 경감시키기 위해 전두환은 6월 13일 쓰리엠의 대표와 बैं크 오브 아메리카, 다우 케미컬, 골프 오일의 대표자들을 포함한 미상공회의소 한국 대표들과 만찬을 했다.



전두환의 미국 지지의 열쇠는
고급관료에 대한 그의 신뢰였다. 이는
밀튼 프리드만과 “시카고 학파”에 대한
피노체트의 승인, 그리고 터키의
새로운 군사독재자와 같았다. 전두환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우호적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이행하는
이들을 장려했다.



- 부채는 신자유주의가 국가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주요방법이다.
- 1980년부터 2002년까지 개발도상국의 빚은 5800억 달러에서 2.4조 달러로 늘어났다.

남한의 외채

년도	외채(10억달러)
1975	8.46
1976	10.53
1977	12.65
1978	14.87
1979	20.29
1980	27.17
1981	32.43
1982	37.08
1983	40.38
1984	43.05
1985	46.76
1986	44.51
1987	35.57

출처:

한국은행 경제계획부서

마틴 하트-랜즈버그(Martin
Hart-Landsberg), 성장을
향한 돌진(*The Rush to
Development*), p. 146

- 신자유주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과 불경기(스태그플레이션)이 번갈아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1980년대 남한의 경제상황 이었다.
- 동시에, 신자유주의는 고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 민주주의적 개혁을 뒤집는 하나의 방법(케인즈이론/미국의 뉴딜정책)이다.

“신자유주의는 한 마디로 모든 것을
금융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 신자유주의의 역사 p33

"뉴욕의 투자은행들은 언제나 국제적으로 민첩하게 움직여왔으며 1973년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되었지만, 지금은 외국 정부에 자본을 빌려주는 것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국제적인 신용과 자본시장의 자유화를 필요로 하며 미국 정부는 1970년대에 이러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지지하기 시작했다."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 신자유주의의 역사 p28

7월 11일 국무장관 보좌관 크리스토퍼는 미국의 은행가들이 한국의 정치적 역학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문을 서울에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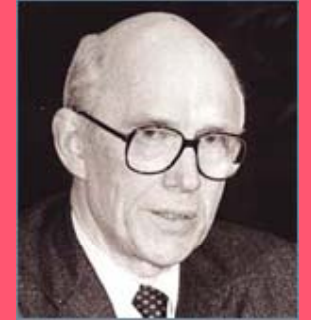
6. U.S. BANKERS WARN KOREA OF FINANCING DIFFICULTIES (C)

WE HAVE BEEN INFORMED BY ONE OF THE LARGE NEW YORK BANKS THAT DURING THE VISIT OF *BANK OF KOREA GOVERNOR SHIN THIS WEEK SHIN WAS GIVEN A BLUNT MESSAGE. SHIN WAS INFORMED BY THE U.S. BANKERS THAT IF KOREA DID NOT GET ITS POLITICAL HOUSE IN ORDER SWIFTLY THEN IT WOULD BE EXCEEDINGLY DIFFICULT TO GET NECESSARY FINANCING BEYOND THIS YEAR. MOREOVER, -EVEN IF THE HANDLING OF KIM DAE-JUNG WERE ACCEPTABLE IN KOREA, THE AUTHORITIES WERE PROCEEDING AS

~~SECRET~~
~~SECRET~~

PAGE 04 STATE 182038

IF THE REST OF THE WORLD DID NOT EXIST -- A DANGEROUS COURSE FOR KOREA IN VIEW OF ITS EXTERNAL FINANCING NEEDS. SHIN MAY BE ABLE TO PASS ON THE LECTURE EFFECTIVELY. WHILE IN NEW YORK HE RECEIVED WORD THAT HE IS TO BE THE NEW MINISTER OF COMMERCE. (RI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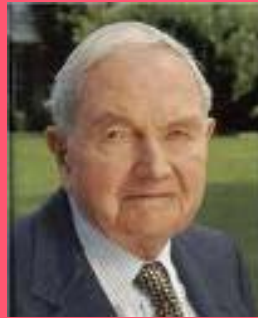


- 미국의 은행가들은 한국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경고했다.
- 우리는 뉴욕의 가장 큰 은행 중 하나로부터 이번 주 * 한국은행 총재의 방문 동안에 신총재가 솔직한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는 정보를 받았다. 신총재는 미국 은행가들로부터 만약 한국이 재빨리 정치적 영향력을 수습하지 못한다면 올해 이후 필요한 재정을 지원받는데 몹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더욱이 김대중을 처리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당국은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외부 자금조달의 필요라는 한국이 당면한 위험한 노정을 볼 때 신총재는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에 있는 동안에 그는 새로운 통상부 장관이 될 것이라는 언질을 전달받았다.
- 9일 이후 언론은 431명의 은행원들이 해고되었다고 보도했다.



8월 2일, 미국의 가장 큰 은행들(뱅크 오브 아메리카, 체이스 맨하탄 신용은행, 화학은행, 하노버 시티은행)은 중단기 대출을 망설였다. 한국 전기공사는 원자력 발전소 7,8호를 위한 상업적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다. 전두환은 그의 반대세력을 향해 더욱 엄격한 조치를 취했다. 이들 은행들이 애매한 입장을 취했던 날, 국무부는 다음과 같은 기밀 전보를 받았다. “한국 국가정보원을 정화하기 위해서 주요 정치적 인물들을 체포하고 자신의 직무 이외의 분야에 관심을 쏟아온 5천명 이상의 고참급과 중간급 군간부들이 해고되었다.” 6만 7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혹독한 “정화캠프”에 보내졌다.





- 9월 2일, 글라이스틴은 만족해하며 이렇게 썼다. “새로운 구성은 국제적인 사업관계에서 이익을 재보증할 것이다.”
- 9월 22일, 뉴욕타임즈는 데이비드 록펠러(David Rockefeller)가 미소를 띤 전두환과 악수를 하는 사진을 실었다.
- 3일 후, 한국 정부는 외국 자본의 남한 내 100% 회사소유, 해외자본의 100% 철수, 외국인의 땅 소유권을 포함한 외국 투자를 완화하는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했다.
- 웨스팅 하우스의 회장 로버트 커비(Robert Kirby)는 서울을 방문한 후 이렇게 말했다. “최근의 한국의 성장과 웨스팅 하우스의 전망은 흡족한 상태에 있다.”



제 3부:

왜 미국은 민주적 개혁을
지지했는가?

미국의 광주 항쟁 진압 지지에 대한 추론

- 또 하나의 이란사태(1980년 당시 미국인 인질과 미 대사관이 여전히 급진세력에 장악당하고 있었던)를 피하기 위해...
- 또 다른 베트남(패배한지 불과 5년 밖에 지나지 않은)을 방지하기 위해...
- 가능한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 1979년 12월 25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한 대응
- 1980년 군부에 대항에 등장한 전국단위의 항쟁을 막기 위해서

수천 장에 이르는 미대사관 자료들은 미 관료들이 광주항쟁 기간 동안에 북한에 의한 위협의 거의 혹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가령 9월 13일, 그들의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서울 미 대사관에 “북한은 미국과의 접촉을 확대하기 위한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으며...

미국과 북한 사이에 ‘평화의 다리를 구축하는 것’은 ‘과거의 불안한 관계를 미래의 우호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 GDMM IX: 355: 80Seoul 007266.
- GDMM X: 401: 80State 244450.

사실은...

미 정부의 문서들을 정독하는 과정에서 나는 그들이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위험은 미국 투자가들에 의한 외국으로의 자본 도피였음을 알 수 있었다.

1980년 당시 민주적인 국가 발전의 상황은 미국의 국제적인 신자유주의 야심에 위협이 될 수 있었다. 전두환은 그러한 발전 가능성을 제거했다.



전두환의 신자유주의 정책들

- 1983년, 전두환 정부는 차익 실현과 자본 유출에 관련한 모든 제한을 제거하는 외국 자본 유입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한국의 외국 투자자들은 1977년부터 1981년까지 약 5년 동안 5억 달러가 조금 넘는 돈을 투자해 1985년까지 매년 두 배 이상의 수익을 남겼다.
- 전두환 정권의 첫 4년 동안 한국의 외국 자본에 대한 부채는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세계 4위의 채무국이 되었다.

1987년, 전국적으로 일어난 6월 항쟁 동안
“광주를 기억하라”는 민주적 개혁을
승리로 이끈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었다.

6월 10-19일,
19일 동안 계속된
집회에는
수 백 만명의
사람들이 참여했다.



미국은 왜 1987년에는 정책을 바꿔
전두환이 군대를 동원하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 1980년 광주항쟁 이후 한국에 영향을 미친
극렬한 반미주의 상쇄
- 마르코스나 전두환 같은 친미독재 정권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산주의 차단에 효과가
있다는 계산

1998년 전두환의 집에서 그에게 호의적인 학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전두환은 6월 19일 주한 미 대사 릴리를 개인적으로 면담한 자리에서 받은 것이 분명한 미국의 압력이 그가 1987년 도심으로의 군대배치 계획을 철회시킨 핵심 이유라고 밝혔다.

조정관의 논문 “민주화의 원동력으로서의 광주항쟁”을 보라.p

76-7

한국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관한 미 주류 역사학자 윌리엄 Stueck에 따르면...

미국은 1987년 민주주의를 향해 접근했지만 이는 1980년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었다. 당시 전두환은 대통령에서 물러날 수 있었고 생명이나 반대파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그의 후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계속적으로 직접선거를 부정하는 것은 군 고위층의 전두환을 향한 충성심이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상황 아래에서는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전두환이 시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것이다.

윌리엄 Stueck "광주사건의 기억" P 157

리차드 홀브루크(Richard Holbrooke)는 1988년 일본, 미국, 서유럽의 3국 위원회에 보고했다.

보다 직접적인 정치 참여에의 요구가 일단 퍼지고 나면, 역으로 이에 대한 완고한 저항이 똑같이 혼란의 원인이 된다. 새로운 발달 단계에 들어선 동아시아에서, 우리는 지난해 마르코스 정부를 통해 이러한 예를 충분히 보아왔다. 이와 대조적으로, 남한의 민중들은 정치참여에 대한 그들의 열망을 보다 호의적인 상황에서 실현해가기 시작하고 있다. 1987년 정부의 최후 승인덕분에 혼돈 혹은 혁명으로 이끌 수 있었던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리차드 홀브루크(Richard Holbrooke), 로데릭 맥파쿠아(Roderick MacFarquhar), 카주오 누카자와(외 Kazuo Nukazawa), 과도기의 동아시아: 3국위원회의 과제 P 5



1980년부터 1987년 사이에
미국의 은행들은 남한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고 만약 전국적인
항쟁이 급진적인 정권을
새운다면 그들의 투자는 위험에
빠질 것이었다.



홀부르크는 같은 보고서에 이와 같이 덧붙였다.

일본, 미국, 서유럽의 3자 국가들은 동아시아
나라들의 성공적인 정치적 변화에 대해 분명하고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없이 지난 20여년 동안 이뤄왔던 경제발전을
향후 20년간 지속해 나갈 수 없다. 이것은 동아시아의
다음 10년을 위한 중심적인 도전이다. 이들 지역에서
정치적 구조와 제도는 경제성장이 가져온
경기대책이 녹슬기 전에 반드시 경제적 발전을 따라
잡아야 한다. (P 51)



전두환의 지속적인 영향

1980년대 한국, 칠레, 터키의 군부독재자들은
“그들이 경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조정과 정치
조직에 대한 깊은 변화를 이끌어 낼 때까지
권력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스테판 하가드(Stephen Haggard), 로버트 카프만(Robert R. Kaufman). 민주적
과도기의 정치경제학(프린스턴 대학 출판부, 1995) p. 42.



Ahmet Kenan Evren
터키대통령(1980-1989)

질문?